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1991년도 회지

창간호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Page 1. 창간사 회장 김 영집

3. 격려사 Massachusetts Governor William F. Weld

4. 격려사 대한민국 보스톤 주재 총영사 박 상식

5. 격려사 Mayor of Boston Raymond L. Flynn

6. 격려사 뉴잉글랜드 한인회 회장 김 성인

7. 시민 협회의 사명 진 교훈 박사

8. 시민 협회의 설립 경위 이사장 김 문소

10. 정책 분석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위원장 송 남수

11. 2세와 시민 협회 위원장 홍 윤기

12.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재무 권 용태

13. 시민 협회 헌장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채택)

17. 기록 - 발기회 소집 공문 (1990년 5월 14일자)

18. 기록 - 창립 총회 개최 공문 (1990년 7월)

19. 기록 - 창립 총회 개최 신문 광고 (1990년 8월)

20. 기록 - 공문 전재 (1990년 10월 1일자)

22. 기록 - 공문 전재 (1990년 10월 20일자)

23. 자료 - 선거 일정 안내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24. 자료 - 유권자 등록 안내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25. 자료 - 등록 및 투표 안내 Massachusetts 주 Elections Division 제공

26. 협회 임원 명단 및 주소록 (1991년 10월 1일 현재)

The Insignia was designed by Douglas D. Wohn & CADD by Kija Kim

Journal , the 1st Publication (1991)	시민 협회 회지, 창간호 (1991년)
Published By ,	발행처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발행일 / 1991년 10월 19일
48 Washington Drive, Acton, MA 01720	발행인 / 김 영집
Tel : (508) 263-1689	편집인 / 김 문소
October 19, 1991	편집 위원장 / 김 명기
Publisher Young J. Kim	편집 위원 / 김 원엽, 송 남수, 원 덕수, 이 학렬
Editor Moon So Kim	비매품
Editorial Board Michael M. Kim (Chief), Wonyop Kim	
Nam Soo Song, Douglas D. Wohn, Hak Ryul Lee	

(협회 창립의 경위, 헌장의 정신과 회원의 임무)

뉴 잉글랜드 지역에 한인회가 처음 조직된 것은 1953년 10월이라고 합니다. 그 후 37년이 지나서 시민 협회가 조직되고 이제는 그 첫 회보를 발행하게 되었으니 그간의 한인 사회의 번영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이에 협회 창립의 동기와 그 과정, 헌장의 정신을 밝히고 우리들이 앞으로 할 일들을 제시 하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떳떳한 소수 민족으로 부상하는 날을 그려 봅니다.

이 지역에는 한인들의 수나 하는 사업의 규모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적은 연유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 협회의 조직이 늦어졌습니다. 근래에 정당 활동하는 이들의 수가 늘고 지방 정부나 연방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출마한 이들이 우리들의 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협회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뜻을 같이한 몇 사람들이 협회 창립을 위해서 발기인들을 확보하기로 하고 헌장을 준비하면서, 기성 한인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 협회를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창립할 것을 1990년 4월 22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립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있는 이들을 다 찾아서 발기회를 조직하는 일이고, 둘째는 시민권자 전체에게 연락하는 일이고, 셋째는 봉사할 인물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교회 조직을 통하여 발기인도 구하고 시민권자도 확인하고 입문도 찾기로 정하고, 여러 교회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 했습니다. 우선 한인회 이사를 포함한 31명의 발기 위원 명의로 1990년 6월 16일에 발기회를 개최하고 헌장 위원과 창립 준비 위원장을 선정하고 창립 준비를 구체화 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조직하는 일은 희생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이 지역에서 다년간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김 문소 장로님, 김은한 의사님, 한복수 이사장님, 김 원엽 장로님께서 여러 교회의 많은 분들과 접촉하였고, 교회에 적이 없는 분들, 또한 불교 기관도 접촉하였고, 진 교훈 박사를 창립 총회의 연사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8명의 발기인을 확보하고 이들의 명의로 두 신문에 회의 개최 광고를 내고, 1990년 8월 18일에 역사적인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 명단에는 60명 뿐이나 그 이상 회의에 참가했으며, 협회의 사명을 진 교훈 박사는 청중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통과한 헌장에 의하면 협회의 조직은 이사회,役員, 평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사들은 협회의 정보와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 운동원들이 준비 모임에 와서 자기 정당 출마자들의 지지를 요청해서 협회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간 이사와役員들이 협력하면서 꾸준

히 일하게 된 것은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역원
들 이사들 외에 평회원들도 협회의 운영을 위해서
회비와 찬조금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
다.

여러 소수 민족들이 거대한 기성 정치 세력 밑에
서 경쟁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즉 유권자들은 누구
나 투표하기 위해서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하고 선거
일에는 반드시 투표장에 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

다. 우리의 수가 비록 적지마는 누구나 다 투표할
때, 정치인들은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이세들은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시민 협회를 키워가야
합니다. 10년 혹은 15년 후에 한인계 주지사, 중앙
정부 장관 차관,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볼 수 있거
를 바랍니다. 그 날에야 우리 개개인은 사회에서 떳
떳한 대우를 받을 것이요, 소수 민족인 우리는 무엇
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지 알게 될 것이요, 우리
의 요청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시민 협회의 발족과 협회지 창간을 축하하며
시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 요한 교회

보스톤 한인 교회

보스톤 장로 교회

장로 김 창욱
장로 김 병철
장로 이 문렬
집사 정 상무
집사 오 상철

장로 조 요운
장로 한 승희
장로 김 문소
집사 강 길원
집사 이 우조

장로 송 남수
집사 현 철우
집사 김 성인
집사 이 정윤
집사 최 승훈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02133

WILLIAM F. WELD
GOVERNOR

ARGEO PAUL CELLUCCI
LIEUTENANT-GOVERNOR

October 19, 1991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48 Washington Drive
Acton, MA 01720*

TO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FIRST GENERAL ASSEMBLY MEETING:

On behalf of all the citizens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am pleased to convey warm greetings to you on the occasion of this historic meeting. This assembly will enhan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Korean Americans in all aspects of American Society.

Lieutenant Governor Cellucci and I encourage you to take part in the national and local political processes. We urge you to develop ties within your local communities and to participate i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merican Society.

The people of Massachusetts send you their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meeting.

Sincerely,

A handwritten signature in cursive script that reads "W. F. Weld".

*William F. Weld
Governor*

제가 보스톤에 부임한 후 제 관할 지역에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발족한 것은 저로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1 조국을 떠나 제 2 조국으로 택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동포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제 2 조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고 권익을 누리는 길은, 자신의 학식과 능력도 길러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반이란 혼자서 닦을 수가 없고, 혼자서 닦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닦은 기반은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기반은 한국 동포 자신의 권익 보호, 신장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동포 전체의 권익 보호,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그들의 제 1 조국인 한국의 국익 신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결하여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추구하도록 미국 정부와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조국에 대하여 지대한 봉사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극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는 행위 및 선거직에 출마하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며, 선거직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대주는 행위 등은 다음으로 중요한 정치 참여 방법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전문을 자기 자동차나 집에 부착하는 행위, 배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 등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 가 아닙니다.

어떤 국가 혹은 지역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도 정치 참여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정부 기관에 서신을 보내거나 탄원하는 행위, 대중 매체에 글을 쓰거나, 출연하는 행위, 시위를 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들도 미국 시민으로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치 의식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동포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로서 회보를 발간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The Challenge of Public Service

As the Mayor of the City of Boston, I am proud of the cultural and ethnic diversity that makes the city such a special place. Since its inception more than 360 years ago, Boston has been a haven for immigrants pursuing the dreams of success and freedom.

It is for this reason that I am honored to have the chance to speak to you through this newsletter and be able to wish the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the best of luck in its efforts on behalf of the region's Korean American population.

I have watched as Koreans came to America and found the success and freedom they had hoped for. Korean Americans have made great strides in the private sector and are an asset to the regions' educational, business, spiritual and cultural life. And now, with their roots in New England growing deeper each day, the challenge to Korean Americans lies in the public sector.

As the President of the U.S. Conference of Mayors, I am greatly concerned about the state of urban America. The needs of our cities challenge the resources of our governmental agencies, making the efforts of those who answer the call to service all the more valuable. Community service is an opportunity to give something back to America, and the contribution Korean Americans can make to the betterment of life here is immeasurable. Our cities offer a wide range of opportunities to become involved from joining civic associations to participating in youth events. By joining the ranks of the teachers, the community leaders, and the volunteers, you can make a difference.

With each passing day, the world embraces the ideals of democracy and unity. We have seen the two Germany's come together in that spirit. We must hope and pray this quest for freedom continues to flourish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Korea. And the key to opening the door to a better world is through the service in the public sector. It is a challenge we must all meet.

Sincerely,

Raymond L. Flynn
Mayor of Boston

이 지역 한인의 권익과 한인 사회의 발전을 도모 하자는 취지 아래 설립된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의 발족을,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 회장으로 서 충심으로 기뻐하며 그 수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조금은 낮은 감이 없지 않으나 큰 뜻을 품고 나래 들렸으니,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그 기상을 마음껏 펼쳐 이 지역에 사는 교포들의 좋은 동반자와 디딤들의 역할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격의와 지위, 신분을 초월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뭉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곳 뉴 잉글랜드의 한인회는 38년 전에 발족을 하였지만, 대부분 미국의 한국인 이민은 70년대 부터 본격화 했으니 이제 겨우 20여년의 역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민 역사 속에 현재의 교포들은 미국 이민 역사의 선구자들입니다. 본인 역시 72년에 온 초창기 이민으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교포 사회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일하였죠. 자신의 준비와 가족의 살림 뿐 아니라, 사회, 종교, 교육, 문화 면에서 개척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였지요. 그리고 일을 하자니 까 말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어느 시대든 앞장 선 사람들은 비평의 표적이 되기 마련이지요.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를 만들며 여행을 하지요. 그 이유는 "V"자를 만들면 앞서 나르는 동료들이 날개를 저어 만들어 주는 기류 때문에 뒤 따르는 기러기가 날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못 받고 가장 힘든 자리는 "V"의 정점이 되는 앞장 선 기러기이겠지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계속 자리를 바꾸어 힘든 선두 주자의 짐을 나누어 맡는다고 합니다. 비록 동물의 본능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개인이고 국민이고 민족이건 간에 장점과 단점은 모두 있게 마련이지요. 그 중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풍습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자기 고집이 세며 특히 단결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 큰 결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요. 지금 이곳 뉴 잉글랜드 교포 사회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뚜렷이 구별지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 나름대로의 단체로 만든 명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체는 두서너 단체가 한데 합쳐도 될 그러한 것이 분리돼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뉴 잉글랜드 한인회는 분명히 2만여 이 지역 교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회 산하에 직능 분과 위원회를 두고 "뉴 잉글랜드 한인회 000분과 위원회" 또는 "000협회" 등 한인 교포 사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인회에 대한 참여 의식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고, 한인회도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구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권익을 주장하고 정치력을 발휘함에 더욱 유리한 입장에 올라서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American Dream"을 성취하는 데에 뉴 잉글랜드 시민 협회가 디딤들이 되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귀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 기관을 창립하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한인회와 교회들이 협조해서 시민 협회를 창립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본이 되는 일이고, 창립 총회에 목사님이 참가하신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항일 투쟁에 앞장 섰었고 King 목사님도 인권 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교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바로 교회들입니다. 협회의 창립을 혹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창립하는 협회의 결실은 10년이 지나야 볼 수 있습니다.



협회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유권자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정치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십시오.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하고 어떤 인물을 지지해야 하는지 지도하십시오.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당선된 후에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지지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하십시오. 지방, 주, 연방의 정치 집회에 자원해서 참가하십시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가입하십시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이들을 발굴해서 기르십시오.

아직 한국계는 시장, 지사, 국회 의원이 없습니다. 인재를 찾아서 시, 주, 연방 정부의 요직에 임명 받도록 추천하십시오. 정부에서 중요한 소식을 신속히 받아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회장단은 5년, 10년 후의 안전과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회원들은 협회의 행사에 참가하고 회비를 납부하십시오. 다른 소수 민족과 협력하십시오.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교민의 대변인으로 내세우십시오.

정치 운동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각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1.5세대, 2세대들 키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유능하고 근면하므로 우리의 장래는 매우 밝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해외에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에서 행한 연설의 요약으로서, 기록 및 정리는 부회장인 장 용복 박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1953년 뉴 잉글랜드 한인회가 시작된 이래, 1970년대 많은 이민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1975년에는 뉴 잉글랜드 한국 학교, 1978년에는 뉴 잉글랜드 한인 회관이 한인회 산하에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53년에 보스톤 한인 교회가 초교파 교회로 처음 시작된 이래,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각 교파별 교회들이 생겨서 지금은 30여 교회에 이르렀고, 실업인 협회, 드라이크리닝 협회 및 의사회 등 각종 직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조직되어 한인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도모 및 정보 교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줄 안다.



보스톤 근교에 한인의 발자취가 시작된 지 어언 100여년이 지난 이제, 이 땅 위에 한인들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 한인 시민 협회가 형성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여진다. 1990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의 열기가 일기 시작할 때에 맞추어 한인 시민 협회의 형성도 급속히 진행된 바, 그간의 경과를 다음과 같다.

1. 1989년 12월, 한인회 송별 파티 때에 김 영집, 김 은한, 김 삼영, 이 문봉, 김 문소 등이 시민 협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다.
 2. 1990년 4월 22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본 협회를 한인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하기로 합의하다.
 3. 1990년 6월 16일, 성 요한 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기관 명칭, 헌장 초안 위원에 김 영집, 김 은한, 김 문소, 박 경수에 위촉하고, 창립 총회 일시, 장소, 안건, 공고문을 채택하다.
 4. 1990년 8월 6일, 창립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 은한 집에서, 김 은한, 김 옥성, 한 복수, 김 영집, 이 영호, 박 재걸, 김 원엽, 김 문소 등이 참석하여 몇 가지 원칙을 채택하다.
- 첫째, 보스톤 지역의 모든 교회가 참여토록 한다.
둘째, 각 교회가 1 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교인이

100 명 이상인 교회에서는 2 명의 이사를 천거한다.

5. 1990년 8월 18일, 성 요한 교회에서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제 1 부주제 강사로 진 교문 선생의 열띤 강연이 있은 후, 제 2 부 총회에서는 본회의 명칭을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로 정하고 헌장을 통과 시켰으며 회장에 김 영집, 부회장에 김 원엽, 장 용복, 총무에 현 철우, 재무에 권 응태 등 임원을 선출했다.

6. 1990년 9월 15일, 첫 이사회를 김 문소 이사실에서 모여, 이사장에 김 문소, 부이사장에 김 옥성, 감사에 한 복수와 김 섭 및 8 명의 고문 (안 창수, 박 경민, 김 철, 백 린, 이재신, 전 주서, 조 요한, 홍 성찬)을 추대하고, 3 명의 섭외 위원 (법률 관계 - 박 경수, 주정부 관계 - 정 용훈, 대변인 - 박대위) 등을 위촉하였으며, 5 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다.

- (1)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위원회 : 김 은한 (위원장), 박 재걸, 최 흥균
- (2) 기금 모금 위원회 : 김 양길 (장), 김 섭, 최 수길
- (3) 정책 분석 위원회 : 송 남수 (장), 노 동섭, 한 복수
- (4) 출판 및 홍보 위원회 : 김 명기 (장), 이 학렬
- (5) 이세 지원 위원회 : 홍 윤기 (장), 원 덕수, 김 영하

또한 본 회의 영문 이름을 "New England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로 결정하다.

7. 1990년 10월 1일, 회원 등록과 투표권자 등록 촉구 공문을 각 교회를 통해 발송 배포하다.
8. 1990년 10월 11일, 성 요한 교회에서 회장단 및 이사회 분과 위원장 연석 회의를 갖고, Weld와 Silver 두 주지사 후보의 선거 정책을 청취하다.
9. 1990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Los Angeles에서 열린 Asian American Voters Coalition의 6th National Asian American Leadership Conference에 김영집 회장이 참석하다.
10. 1990년 10월 20일, Asian American Committee For Weld 회장 최 승훈 닥에서 가진 Weld와 Cellucci 모금 파티와 간담회에 김영집 회장, 김 문소 이사장, 김철 고문 등이 참석하다.
11. 1990년 10월 26일에는 11월 6일 투표에 즈음하여 선거 안내, 후보자 경력 및 정책 분석표를 각 시민 협회 회원에게 배포하다.
12. 1990년 11월 6일 투표권 행사.
13. 1991년 1월 3일, 주지사 Weld 당선 축하 파티에 김영집, 김 문소, 김 은한, 한복수, 김철, 최 승훈 등 많은 한인들이 초대 참석하다.
14. 1991년 2월 9일, 김 은한 닥에서 고문 이사회 장단 연석 회의를 갖고, 박상식 보스턴 총영사, 백턴 고문 등의 강연과 김영집 회장의 L.A. 여행 보고

를 청취하다. 정기 분과 위원장 모임을 갖기로 하다.

15. 1991년 4월 13일, 제 1차 분과 위원장 모임을 송남수 닥에서 갖고, 각 분과 위원회의 구체 사업 계획을 논의, 특히 협회 회지 발간 계획을 통과 시키다.

16. 1991년 8월 3일, 제 2차 회장단 및 분과 위원장 연석 회의를 김 양길 닥에서 갖고 협회 Logo와 Letterhead를 결정하고 10월 19일에 있을 제 2차 정기 총회 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다.

이상으로 간단한 경과 보고를 마치면서, 매 2년 마다 있게 될 주 정부, 연방 정부 선거에 모든 한인 시민권자들이 빠짐 없이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 협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가 생각 된다.

끝으로, 한인회라는 포괄적인 조직체 안에 유형적인 한인 회관이 하루 빨리 건립되어 한국 학교와 시민 협회 등 모든 한인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맺음으로 상호 발전되어 이 땅 위에서 한인들의 뿌리가 점차 깊어지기를 기원한다.

시민 협회 가입 안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시민 협회의 대열에 함께 해 힘을 합칩시다.

이 회지내에 있는 가입 원서를 지금 곧 써서,

1인당 년 회비 10불과 함께 지정된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위한 미래에의 투자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또한 소수 민족인 한인으로서 권익을 보장 받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 협회가 출범한지 벌써 일 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협회 자체내의 활동이 요구될 터인데, 정책 분석 위원회는 특별히 각급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그 후보자의 개인적인 경력 및 정책을 분석하여, 한인 시민권자의 이해를 증진시켜서 투표 참여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투표시에 적절한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그 활동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정착하고 사는 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고유하며 참으로 잘 정립된 정치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한인에게는 아직도 여러가지로 생소하며 이해하기가 힘든 선거 및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지난 90년도 거행된 선거는 주지하다시피 참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선거전이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자들의 중요 항목에서의 소견들을 요약하여 시민권자들에게 배부를 했었다. 경제 정책 (특히 세금 제도), 교육, 주택, 사회 복지, 범죄 문제, 노인 복지, 보건 및 위생, 그리고 소수 민족에 관한 이슈 등에 관해서 각 후보자들이 다각적으로 차이들 보이는 점들을 포착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민권자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입장을 투표를 통하여 좀더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90년도 선거시에 그랬듯이 입후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이슈들을 직접 질의하여, 예를 들면 입후보자들이 한인들에게 갖는 인식도에 관한 질문 혹은 최근 개정된

소수 민족의 이민법에 관한 견해 등등,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우리의 권익에 해당하는 관점에서 평가하여 판단내릴 수 있도록 길을 잡아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 분석 위원회의 활동이라 하겠다.

입후보자들이 각 타운, 카운티, 시티, 그리고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다음 선거에는 좀더 다각적으로 그 정책들을 분석하여 각 급별 후보자의 입장을 좀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정책을 분석하는 데는 4 가지 측면이 있겠다. 우선적으로는 그 입후보자의 정책이 미국 연방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에 있는지, 그 다음으로는 주 정부 레벨에서 현실성과 이상성을 감안하여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는 입후보자 개인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 정책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서는 우리 한인 시민권자의 고유한 입장에서 그 정강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을 위해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필요시에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시민권자들과 입후보자들의 질의 응답을 위한 모임도 주선해야 될 경우도 있을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정책 분석 위원회가 주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연구가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가 될 것을 인식하고 그러나 앞으로 이 사회에서의 한인 시민권자들의 굳건한 밀반침을 위한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보람된 일로 생각하고 관심과 적극성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우선 한인 미국 시민 협회지의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며 저의 짧은 소견을 신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곳 미국 땅에 이민 온 2세로서, 당연한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주장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부당한 권리나 이익 침해에도 나설 수 없었던 가슴 아픈 학창 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때문에 막상 귀한 지면을 할애 받고보니 알 수 없는 떨림도 숨길 수가 없으며 문득 이스라엘 민족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저들은 사실 2천 5백 년 간을 나라 없이 배회하던 민족입니다. 흔히 한 국가의 형성 요소들 국토, 주권, 국민이라 하는데 국민만 남고 다른 것은 다 잃은지 오랜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배회하기를 수백 대, 타국에 살면서 본래의 풍습도 언어도 잃어 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민족으로서 저들은 소멸되지 않고 수천 년 후인 2차 대전 말, 팔레스타인 항무지로 모여들었으며 그 이후, 중동 시대의 유일한 근대화 국가들 이룩해 놓았으며 계속된 세계사를 사실상 이 민족이 주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 시, 유대 청년들이 모두 나라를 지키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장마다 늘어난 대열이 있었다는 기억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강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저들의 능력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은 그 언어마저 잃어버리고도 그들의 동질성 (Identity)을 "나는 유대인"이라는 데서 발견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견고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이곳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한국인 2세들은 이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에서 우리의 동질성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잘 사는 것 - 그것은 아닐 겁니다. 민족적 긍지를 경제적 기준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일 것입니다.

한 민족의 긍지는 세계적 안목에서 구체적 이념까지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꿈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풍요한 물질 문명에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길"이 더욱 절실하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넓고도 넓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 우리 한국인이야말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의 뿌리 깊은 나무를 키워나가야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던 등방 예의 지국의 후손들로서의 긍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더불어 전해오는 고유한 전통과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를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 외에도, 우리 2세 및 후세에 심어 줘야 할 조국 사랑의 진한 마음과 확고한 뿌리 의식은 2세 본인 뿐 아니라 재외 한인 교포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욱 몽치고 몽쳐서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을 서로 나누면, 잘 가꿔진 한국인이라는 이름들이 나무는 우리 한인 사회의 공동 목표인 권익의 주장과 행사 그리고 한인 사회의 발전이라는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짧은 뉴 잉글랜드의 한인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한인 사회와 때 맞추어 결성된 한인 미국 시민 협회가 참으로 우리 시민권자들의 정당한 권익의 행사와 보장에 도움이 되며, 특히 우리 2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오며, 이를 위해 김영집 회장님과 김문소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부단한 애쓰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인 사회의 놀라운 발전과 보다 커다란 민족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화이팅(Fighting)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수입 내역

재무 권 용 태

(8/31/91 현재)

FINANCIAL REPORT

총입금	회비	\$1,660.00
	이사회비	\$1,600.00
	찬조금	\$640.00
	합계	\$3,900.00
총지출	창립 총회 강사	\$551.92 (여행, 숙박)
	창립 총회 Pastry	\$150.00
	창립 총회 광고	\$530.00
	회장 회의 참가	\$450.50 (여행비)
	회장 회의 참가	\$150.00 (회비 부담)
	우표값	\$39.90
	합계	\$1,872.32
은행	이자	\$82.69
	Service Charge	(\$26.50)
	합계	\$56.19
Bank Balance as of 8/31/91		\$2,083.87

회비 납부자 성함

한복수 \$20.-	박경수 \$20.-	권용태 \$20.-
최수길 \$20.-	김정완 \$20.-	김병철 \$30.-
김옥성 \$20.-	김창덕 \$20.-	박재걸 \$20.-
박석만 \$20.-	김광능 \$20.-	김성인 \$20.-
김삼영 \$20.-	조무선 \$20.-	김재룡 \$20.-
이명희 \$20.-	노동섭 \$20.-	노명화 \$20.-
조정자 \$20.-	백이태 \$20.-	강동민 \$20.-
조차희 \$20.-	임병규 \$20.-	오상철 \$20.-
김수진 \$20.-	한상신 \$20.-	정옥경 \$10.-
김내도 \$20.-	한송희 \$20.-	김현 \$20.-
조준호 \$20.-	백린 \$20.-	김성빈 \$20.-
최연일 \$20.-	이일영 \$20.-	변화경 \$20.-
이우조 \$20.-	조요운 \$20.-	정진기 \$20.-
강길원 \$20.-	이강필 \$30.-	최은정 \$20.-
권이덕 \$20.-	주상배 \$20.-	김희준 \$20.-
최영훈 \$20.-	권진태 \$20.-	박재영 \$20.-
서석인 \$20.-	최찬혁 \$20.-	박명효 \$20.-
김정선 \$20.-	윤종완 \$10.-	최은집 \$20.-
임나경 \$10.-	김호권 \$10.-	박병길 \$20.-
김영태 \$20.-	김창신 \$20.-	문영로 \$10.-
김갑성 \$20.-	송남수 \$20.-	
Christopher H. Kim \$10.-		Stephen N. Choi \$20.-

(주: 아래의 명단은 지불자의 성함에 기준하였으며, 접수자의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착오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회비, 이사회비 및 찬조금 납부자

성함	회비	찬조	성함	회비	찬조
김은한	\$40.-	\$700.-	김원엽	\$20.-	\$100.-
권순호	\$20.-	\$30.-	김영집	\$20.-	\$30.-
김명기	\$20.-	\$100.-	김문소	\$40.-	\$200.-
최홍균	\$30.-	\$100.-	이문열	\$40.-	\$80.-
장영복	\$20.-	\$100.-	김철	\$10.-	\$100.-
김영하	\$10.-	\$100.-	안창수	\$10.-	\$100.-
현철우	\$40.-	\$100.-	이학철	\$50.-	\$100.-
박경민	\$10.-	\$100.-	노동섭	\$20.-	\$100.-
김양길	\$20.-	\$100.-	원덕수	\$20.-	\$100.-

감사의 말씀

회비를 납부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이사회비, 찬조금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시민 협회 창간호
발간에 찬조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협회 임원 일동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 장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이하 본 회)라고 부른다.

제 2 조 (위 치)

본 회의 관할지역은 뉴 잉글랜드로 하며 본 회의 사무소는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에의 적극적 참여 권장
2.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향유 및 의무 수행
3. 한미 우호관계 증진
4. 미국 사회 발전에의 기여

제 4 조 (사 업)

1. 선거권, 피선거권 권장
2. 한 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 지원
3. 한 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연방 및 지방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 로비 활동
4. 한 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인사 (정부 및 언론 매체등)에 대한 청원서, 서신등 송부
5. 한 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시위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 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정회원 : 정회원은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자.

특별회원 :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자로서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한 자

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정권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9 조 (뉴 잉글랜드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 잉글랜드 한인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제 10 조 (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회원(정회원, 특별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직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회한다.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단 또는 재직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회장은 회의 3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한 1회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이사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제 11 조 (총회의 결의사항)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1.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2.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3. 회장단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이사 선출
4. 헌장 개정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제 12 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총회에 건의하며 회장단의 총회결의 사항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단 및 이사의 추천
2.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3.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4. 헌장 개정 추천
5. 세칙의 제정 및 변경
6. 회원의 가입, 자격정지 및 제명
7. 회비 책정
8.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서
9.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
10. 고문의 추대
11.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제 13 조 (역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역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3. 총 무 1명
4. 재 무 1명
5. 설 의 약간명
6. 이 사 장 1명
7. 부 이사장 1명
8. 선출 이사 30명 이내
9. 감 사 2명 이내

제 14 조 (역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선출 이사는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투표하여 득점순으로 선출한다.
4. 설의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중에서 다수결 투표로 선출한다.
7. 이사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8.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역원의 임기)

1. 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선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역원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전임자의 잔여 기간 재임한다.

제 16 조 (역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 회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본 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 12조에 정한 회무를 의결한다.
6. 재무은 회비를 징수하고 본 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산 보고를 한다.
7.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이사회 서기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총무가 겸임한다.
9. 설의는 회장 및 이사자의 위임을 받아 본 회를 위한 설의활동을 한다.

제 17 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의 업무집행 보좌
2. 특별회원의 추천

제 4 장 재 정

제 18 조 (수입)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지출)

본 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 5 장 현 장 개 정

제 20 조 본 현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경 과 조 치

1. 첫번째 이사및 첫 회장, 부회장, 총무의 선출 방법은 창립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현장은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